

★ 2019년 6월 29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上冊(인민교육출판사, 2018)(2016년 교육부검정)  
(초벌 번역임)

#### 제4단원 삼국양진남북조시기 : 정권분립과 민족융합

동한말기의 농민기여와 군벌할거는 양한 대통일의 국면을 끝냈다. 위, 촉, 오 삼국의 정립은 분열된 중국으로 하여금 국부 통일을 향하게 했다. 이후 서진은 전국을 통일했지만 오래지 않아 바로 분열의 국면에 빠지게 됐다. 이후 동진, 남북조시기와 여러 정권이 병립하여 정국이 어지럽고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위진남북조시기 각 민족간의 교역이 강화되고 교류와 융합이 늘어났고 지역 개발, 특히 남방경제가 발전을 이루었으며, 과학기술문화에 현저한 진보를 보였다. 이러한 발전은 모두 새로운 통일 국면의 형성에 기초를 마련했다.

#### 제 16과 삼국의 정립

- 官渡전투:동한말기 하남일대를 차지한 조조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현제를 낙양에서부터 하남성 허창현 동쪽에 해당하는 허로 데려온 뒤 황제의 이름을 빌려 천하를 호령하고 각종 인재들을 끌어들이었다. 농업생산 방면에 조조는 둔전 조치를 채용했고, 군대와 도망한 민중들을 조직해 농업생산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도망한 유민의 생계를 해결할 뿐아니라 군량미를 축적하였다. 조조의 세력은 점차 강성해졌다. 당시 황하 이북을 차지한 원소는 병사도 많고 식량도 충족하여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다. 조조와 원소는 모두 상대를 합병하여 북방의 영웅이 되고자 했다. 200년 쑹방은 관도에서 결전을 벌였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각 종 전술을 택하여 원소의 군대를 습격하였고 군량을 전부 태웠으며 신속하게 원소 군대의 주력군을 섬멸하여 이후 북방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 赤壁대전: 208년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남방의 할거세력을 소멸하고 전국을 통일할 준비를 했다. 조조군대가 형주를 점령한 후 유비 군대 세력은樊城으로부터 夏口로 후퇴한다. 그는 제갈량을 파견하여 손권과 손을 잡고 조조를 항거할 작전을 공모한다. 손권은 周瑜 장군과 제갈량의 의견을 듣고 유비와 연합하여 조조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조조 군대 병력은 20 여 만이었고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5만이었는데 구 군대가 적벽에서 대치한다. 조조군대는 먼길을 달려와서 병사들이 피폐한 상태였고 군사들이 대부분 북방인들이라 기후풍토에 적응할 수 없었다. 또한 전염병이 유행한 상태에서 바로 교전을 해야했다. 이에 조조 군대는 바로 패하게 되어 강북으로 철수 했다. 조조 군대가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점과 군함들이 서로 같이 연결된 약점을 겨냥하여 周瑜는 黃蓋의 건의를 받아들인데 황개가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고 동시에 불로 공격했다. 황개가 투항서를 보낸 후 몇 척의 군함을 이끌고 갔는데 위에는 기름을 뿌린 뿔감을 싣고 맞은편 강기슭으로 달렸다. 조조 군대 관병은 항복하러 오는 오나라 군대라고 여기고 조금도 방비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배가 조조 진영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점화하였고 바람을 이용하여 조조 진영의 함대 뿐아니라 강기슭의 요새까지 불태웠다. 주유는 곧 군대를 이끌고 건너와 공격하여 조조 군대를 궤멸했고 조조는 대패한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했다. 적벽대전은 당시 전체 형세에 관건적인 영향을 주어 삼국정립의 국면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이루었다.
- 삼국정립: 적벽대전후 조조는 방향을 바꾸어 관중을 경영하며 관중의 할거세력을 평정해 북방의 통일을 완성했다. 유비는 호북, 호남지역을 점령하였고 또 서남방향으로 발전하여 사천성과 운남, 귀주지역을 차지했다. 손권은 한편으로는 그의 통치권을 복건, 광둥으로 연장했고, 한편으로는 유비가 있는 호북, 호남 세력 범위를 또한 강탈하기도 했다.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현제를 폐위시키고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국호를 魏라 하였다. 221년 유비는 성도에서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漢이라 하였는데 역사상 蜀漢이라 한다. 다음해 손권이 스스로 오왕이라 하였다. 229년 손권은 건업에서 스스로 황제라하고 오나라를 세웠다. 삼국정립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조위는 농업생산을 중시했고 수리사업을 크게 일으켰다. 손오는 강동을 개발하였고 조산업을 발달시켰으며 해외무역을 발전시켰다. 230년 손권은 장군 위운을 파견하여 만명과 함대를 이끌고 夷州에 도착하여 대만과 대륙의 연계를 강화했다. 촉한은 승상 제갈량의 지휘 아래 경제가 발전했고 민족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서남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했다.

### 제 17과 서진의 짧은 통일과 북방 각 민족의 내전

○ **서진의 건립:** 삼국 후기, 위나라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오나라와 촉나라 두나라는 날마다 쇠락하였다. 263년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켰다. 조위 중기에 태위 사마의는 새롭게 즉위한 어린 황제를 보좌하였고 오래지 않아 사마의가 점점 위나라의 군정 대권을 장악했다. 사마의가 죽은 후 그의 두 아들이 이어 전권을 부여받았으며 위나라 황제는 꼭두각시와 같았다. 266년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국호를 진으로 바꾸었으며 낙양을 도읍으로 하였다. 사마염이 바로 진무제이다. 280년 서진이 오나라를 멸했고 전국을 통일했다. 서진의 황실과 많은 대신은 대지주이자 대귀족출신이었다. 서진왕조는 일련의 대지주와 대귀족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했다. 당시 많은 대귀족, 대지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상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이 부족했고 도처에 자기 가족의 권세를 보호하고 생활상 호화와 사치가 무성하였으며 향락을 추구했다.

○ **팔왕의 난:** 서진 초, 진문제는 조위가 분봉한 제왕 세력이 점점 쇠약해져 고립과 함께 멸망을 초래했다고 여겼다. 그래서 동성 제후왕을 대거 책봉했다. 후에 진무제는 지속적으로 모든 제후왕을 파견하여 주, 군의 요충지를 지키게 했다. 이러한 지방장관 출신의 종실 제왕은 군대와 민사를 장악하여 세력이 날로 강해졌다.

서진의 통치는 부패하여 내전한 각 족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징병하여 전투에 파견했고 심지어 소수민족 인민을 유괴하여 노비로 팔기도 했다. 이러한 폭정은 내전한 인민들의 강한 반항을 초래했다. 어떤 소수민족의 수령은 기회를 타서 기병하고 진에 반기를 들었다.

진무제의 아들 진혜제는 어리석고 무능했다. 그가 재위시절 군대를 장악한 8명의 왕자가 중앙정권을 쟁탈하기 위해 앞뒤로 기병을 하고 서로 난투를 벌였는데 이를 “팔왕의 난”이라 한다. 팔왕의 난은 주로 낙양일대에서 일어났다. 이 내란으로 인해 사회는 거대한 대재해를 만들어냈다. 당시 쌀값이 비약하여 1석에 만전에 해당했고 인민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받았다. 팔왕의 난은 십 몇 년을 겪었는데 서진은 여기서 쇠락했다. 중원의 인구는 대량 사망하였고 운 좋게 생존한 자들은 도망갔다. 그 중 남방으로 도망한 자가 수십만에 달했는데 우리 고대 역사상 처음 대규모 이주의 고조를 이루었다.

북방유목민족의 내전 : 우리나라 북방은 끝이 없이 무한한 초원이 있어 북방유목민족을 양육했다. 그들은 물과 풀이 무성한 초원에서 말과 소와 양을 방목하였고 물과 초원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했다. “푸르고 넓은 하늘 天蒼蒼, 끝없이 망망한 초원 野茫茫. 바람 부니 풀이 움직이고 고개를 숙이니 소와 양이 보이네 风吹草低见牛羊” 이는 그들의 생활을 생동감있게 묘사한 것이다.

동한, 위, 진대 우리나라 북방의 유목민족은 부단히 내천하였다. 원래 서북지역에 생활한 저족, 강족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섬서성 관중으로 갔고, 몽고초원에 분포했던 흉노족과 갈족은 북에서 남쪽 산서성 일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선비족 일부는 요녕성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섬서성과 오르도스(하투(河套))지역으로 옮겼다. 서진시기 산서성과 섬서성으로 내천한 각 민족의 인구는 총인구의 반이 넘었다.

서진 멸망 후 4세기에서 5세기 전기까지 북방 각 민족 통치자는 전후로 여러 정권을 세웠다. 역사상 북방의 주요한 15개 정권과 서남 지역의 정권을 합하여 16국이라 한다.

16국 시기 각국은 피차 전쟁을 하면서 경제는 엄중히 무너졌고, 생활이 어려워져 도처를 떠돌게 되었다. 4세기 후기 저족 부씨가 세운 전진이 점점 강성해 지면서 황하 유역을 통일했다. 저족 귀족은 한족 문명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황제 부견의 한문화의 수양도

높았다. 부견은 한인 왕맹을 임용하여 승상으로 삼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했다. 그들은 관리의 공무를 정돈하고, 법치를 이행했으며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유랑민을 보살폈으며 사치를 금지하고 부세를 절감시켰다. 또한 강력하게 학교를 일으키고, 유학을 제창했다. 그때 전진이 영토내에 호한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완화되었다.

**제 18과 동진 남조시기 강남지역의 개발**

- **동진의 흥망:** 316년 내전한 흉노인은 서진을 멸망시킨다. 그 후 장강 하류지역을 지키는 황족 사마예가 317년에 건강을 도성으로 하여 다시 진양조를 세우는데 역사상 “동진”이라 한다. 사마예와 남하한 북방 산동 대귀족 왕도가 서로 긴밀하게 왕래하였는데, 그가 황제가 되기위해 왕도를 수뇌로 한 남북 대귀족의 추대를 받는데 유리하였다. 사마예는 정치적으로 왕도를 의지했고 군사적으로 왕도의 사촌형 왕돈을 의지했다. 왕씨의 다른 자녀들도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중용되었다. 사마예의 즉위식에 왕도를 초청하여 같이 황제의 의자에 앉았고 당시 사람들은 “왕과 마(왕도와 사마예)가 같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일컬었다.

동진시기 여러 차례 북벌을 단행하여 여러 차례 황하 이남 지역의 일부를 수복했다. 동진 조정이 북벌에 대해 고위 군관들은 의심을 하여 다방면에서 견제를 했고 북벌은 후원을 얻지 못해 결국 중원을 회복할 수 없었다.

동진은 성공적으로 북방의 군사 위협을 방어했고, 통치국면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사회경제가 발전했고 강남에 “형주와 양주가 모두 평안하고 백성들은 부유한” 모습이 출현했다. 동진 말년 정치는 무장들의 손에 빠지게 되었고 420년 동진은 멸망한다.

- **남진의 정치:** 420~589년 중국 남방 정권의 교체가 빈번하여 송, 제, 양, 진의 네 왕조가 서로 이어 출현한다. 이러한 왕조는 모두 건강에 수도를 세웠는데 역사상 “남조”라 일컫는다.

송은 남조에서 가장 최대 강역을 보유했던 왕조로 송무제, 송문제의 재위기간이 30여 년이었는데 세금과 부역을 경감하여 강남 백성들은 부유해졌고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남조시기 지방을 지키는 귀족과 고위 군관들의 세력이 매우 컸다. 양무제 소연(蕭衍)은 지방에서 기병하여 황제의 지위를 탈취한 후 황실 구성원을 방임하고 관료 대지주는 평민 백성을 가혹하게 탈취하였으며 정치는 날로 부패했다. 후에 대규모의 전란이 발생하면서 건강은 함락되고 강동 최고의 부유한 지역도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재산이 약탈당하는 일을 겪어 인적을 보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남북조의 실력을 비교할 때 남조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 **강남지역의 개발:** 진한시기 북방과 남방의 경제 발전은 매우 불균형한 상태였다. 황하 유역의 경제는 발전하여 전국의 경제 중심이 되었다. 한편 강남지역은 땅이 넓고 사람이 적어 농업 생산이 낙후했다. 서진 말기 이래 대량의 북방 백성들이 전쟁의 재난을 피해 남하했다. 동진 후기에 장강 중하유역에 남으로 이동한 유랑민들이 가득했고 특히 강소 일대가 많았다. 어떤 일부 유랑민들은 오늘날의 절강, 복건, 광둥지역으로 들어갔다. 북방인의 남쪽 이주는 강남지역에 대량의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중원의 선진적인 생산 도구와 기술을 가져가 자연 조건이 우월한 강남지역이 개발되었고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당시 강남지역은 북방지역과 같이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남하한 이민과 현지 민중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대량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경작면적도 부단히 증가하였고 여러 수리공정을 일으켰다. 농업생산 기술도 크게 개진하여 농작 면적도 넓어졌다. 또한 농사일을 알뜰하게 경영하여 종자의 선종, 육종, 경지 관리, 인분 비료 사용 등 비교적 선진적인 생산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다.

예를 들면 논벼는 원래 직파에서 품종을 개량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논벼 생산 기술의 중대한 발전이었다. 보편적으로 보리와 벼를 겸작하게 되었으며 오령(五嶺)이남 지역에 또한 이모작이 가능한 벼를 심어 식량 생산이 매우 높아졌다. 이 외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발전시키고, 과일 나무를 재배하며, 약재 등을 심어 농업의 다종 경영을 시행했다. 남방의 수공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누에서 실을 뽑고, 천을 짜며, 자

기를 만들고, 금속을 제련하며, 배, 종이, 염을 만드는 등 각 방면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은 상업의 교류와 도시의 번영을 촉진했다. 남조의 건강은 인구가 많아 당시 상업이 최고로 발달한 대도시였다.

#### 제 19과 북위정치와 북빙민족의 대응합

- 비수 대전 (淝水大戰): 강대해진 전진은 강역이 동쪽으로는 대해에 가깝고 남쪽으로는 한수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구차, 북쪽으로는 사막에 도달하여 남방이 동진과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한다.

383년 부견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 백성을 징집하여 군대로 삼았는데 보병 60여만명, 기병 27만명을 모두 모아 호호탕탕 남하했고 동진을 멸망시켜 중국 통일을 기도했다. 출사전 부견은 스스로 병사가 많고 세력이 강함을 믿어 자신의 백만대군이 “채찍을 던지면 흐르는 강물을 족히 끊는다”라고 했다. 동진은 일치 단결하여 조용히 응대했는데 8만명이 정예군으로 응전했고, 비수에서 전진 부대의 선봉군과 강건너 마주보며 대치했다. 곧 결전이 발발하려 할 때 동진의 군관들이 동진 군대가 강을 건너 교전할 수 있게 전진 군대가 조금 뒤로 후퇴할 것을 제안했다. 부견은 동진군이 강을 건널 때 갑자기 습격하면 단방에 이긴다고 생각하여 바로 군대에게 후퇴를 명했다. 뜻밖에 전진군이 후퇴할 때 어떤 사람이 진영 뒤에서 크게 소리지르길: “진병이 대패했다”고 했다. 전진군이 갑자기 진두에서 대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짓밟았고, 한번 무너지니 수습할 수 없었다. 동진 군대는 이 틈을 타서 맹렬히 공격했고 전진군을 대패했다. 부견은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고 잔병을 이끌고 북방으로 도망갔다. 비수 전투는 중국 고대의 적은 군대로 많은 인원을 이긴 유명한 또하나의 전쟁이다. 비수의 전투 이후 전진은 빠르게 붕괴되었고 북방은 다시 분열과 난투의 상태에 빠졌다.

- 북위효문제 개혁: 4세기 후기 음산(陰山)지역에서 유목을 하던 선비족 탁발부가 신속하게 흥기하여 북위를 세웠다. 439년 북위는 북방을 통일하여 16국 이래의 분열할거의 국면을 종결했다. 당시 북방 각족의 백성들은 장기 잡거하였고 민족의 취락은 많이 부이지 않게 되었다. 내천한 각족은 생산과 생활 습속면에서 한족과 이미 현저한 구별이 없어졌다. 선비탁발부는 내천이 비교적 느렸던 탓에 선비족의 습속이 여전히 있었고 광활한 북방지역을 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북위 효문제는 즉위 후 문치로서 다른 풍속을 바꿀 것을 결심했다. 그는 힘으로 다수의 의견을 물리치고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여 선비족을 포함한 백여만명의 북방 각족 백성을 중원으로 이동시켰다. 그는 한층 더 한화 조치를 추진했고 관원들이 조정에서 한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고 선비어를 금지했다.; 한족 복식으로 선비족 복식을 대신했고 선비족의 성씨도 한족 성씨로 바꿨다. 선비 귀족과 한족 귀족의 혼인을 장려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족 융합을 촉진시켰고, 북위의 세력도 증가했다.

- 북방지역의 민족 융합: 위진이래 내천한 각족 백성들과 현지 한인들은 서로 뒤섞여 살면서 정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족 백성들에게 농업기술을 배워 점차 목축업을 종사하는 생산 방식을 농업 생산으로 바꾸었다. 한족 백성들은 북방 각 민족 백성들에게 목축업의 경험을 배웠고 그들의 음식, 복장, 생활용구 등을 받아들이고 배웠다. 16국 북조 정권의 통치자는 한족 선비들과 합작하여 중원지역의 통치방식을 답습하여 군주전제제도를 실행했다. 이시기 민족관계는 어떤 때는 모순이 격화되고 전쟁도 일어났지만 총체적으로는 민족간의 장벽이 점차 와해되고 평화롭고 화평하게 되어 북조 후기 우리나라의 북방에는 각민족의 대응합이 출현했다.

각민족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왕래할 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날로 빈번해져갔다. 서진시기 내천한 각민족은 대부분 한어를 사용했다. 북위 효문제 개혁이후 한어는 북방의 주요한 통용어가 되었다. 서북민족의 악기, 가무 등은 한족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민족은 심리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함에 따라 사상과 감정이 날로 더 소통하면서 과거의 “호”와 “한”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지고 민족간의 장벽과 편견은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북방지역의 민족 교역과 교류, 융합은 중화민족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었고 중화민족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한층 더 풍요롭게 하였으며 동시에 수당시기 다민족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 제 20과 위진남북조의 과학기술과 문화

- **가사협(賈思勰)의『제민요술(齊民要術)』**: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권이 완전한 농서는 북조 가사협이 편찬한『제민요술』이다. 가사협은 일찍이 군의 태수를 역임했고 매우 농업 생산을 중시했다. 그는 고서 중 기록된 농업 관련 지식을 모으고, 민간 가요 중 속담 등을 채집하였으며 농민들의 생산 경험을 흡수한 뒤 또한 자신이 생산하면서 실천한 가운데 증명된 풍부한 경험을 정리하였다.『제민요술』은 농업, 임업, 목축업, 농업 방면의 부업, 어업 등 생산 기술을 총괄하여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가사협은 농업 생산에서 자연법칙을 따를 것과 농작물을 심는 것은 반드시 각지의 실정에 맞게 하고, 농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기술과 농기구를 개진해야 하고 각종 경영과 상품 생산 방면에서 중요한 사상을 제안했다.

이 농업 과학 기술의 저작은 중국 고대 과학자가 민생을 기본으로 한 실용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당시 농업 생산 기술이 이미 높은 수준에 오른 것을 반영한다. 이 농서는 후대 농학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농학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과학자 조충지(祖冲之)**: 조충지는 남북조시기의 걸출한 과학자로 그는 수학, 천문역법, 기계제조 방면 등에서 모두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학문을 엄격하게 하고 무턱대고 따르지 않았다. 삼국시기 위나라 수학자 유희(劉徽)가 가장 먼저 “극한”사상을 포함한 원주율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고 원주율 3.141 6을 얻어냈다. 조충지는 유희의 방법을 응용하여 원주율의 매우 정확한 소수점 이후의 7 자리 숫자 즉 3.141 592 6과 3.141 592 7을 찾아낸 것이다. 이 성과는 세계 근 천년이래 가장 앞서있다. 조충지는 또한 역법에서 세밀한 관측과 추산을 진행하였고 측량 계산을 1년간 했는데 현대 천문과학의 측량 계산법과 비교했을 때 50초 밖에 차이가 없다.  
그는 당시 가장 선진적인 역법인『대명력(大明曆)』을 만들어 조정에 올렸고 새로운 역법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조정 대신들은 이 젊은 인물이 개발한 새로운 역법을 믿지 않았고, 하늘의 도를 왜곡하고 멸시하며 경전을 배반했다고 하여 시행을 거부했다. 510년에 돼서야 『대명력』이 정식으로 공포되고 시행되었는데 조충지(祖冲之)가 이미 세상을 떠난지 10년 뒤의 일이었다. 조충지는 또한 기계 제조에 능숙했는데 사서에서 그가 제조한 천리선(千里船)은 “하루에 백 여리를 가고”, 지남차는 “마음대로 회전하고 방향을 가르키는 것이 시종 한결같다”고 했다.

- **서법, 회화와 조소**: 한 대 제지술의 발명은 서사 체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시켰는데 서법예술이 한층 더 발전할 물리적인 조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서예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동한 이후 서예는 이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감상하는 예술이 되었다.

종요(钟繇)와 호소(胡昭)는 조위시기 유명한 서예가로 그들은 한말 여러 서예가들의 장점을 수렴하고 행서, 초서, 예서에 강하여 자신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종요(钟繇)는 독특한 해서 서법을 만들어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점과 그림의 사이를 오가며, 색다른 정취를 많이 풍기니 후세 사람들이 그의 해서체를 절세의 작품이라 일컬었다. 서진시기 서박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서법을 배우게 하였는데 종요와 호소의 서법이 표준서체가 되었다.

서법 예술이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것이 동진의 왕희지 시기이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서법을 배워 각종 서예의 우수한 장점을 계승했고 해서와 초서가 특히 뛰어났다. 그의 행서와 해서는 기왕의 예서와 전서의 흔적을 벗어났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의 서법을 “고금의 으뜸”이라 했고 그의 필체는 “뜯구름이 흩날리는 듯하고, 놀란 용의 움직임과 같이 강하다” 라고 칭송했다. 왕희지의 대표작인『난정집서』는 필체가 자유자재하고 자연과 하나된 듯한 경지에 달했다. 『난정집서』는 “천하 제일의 행서”라 일컬어 진

다. 왕희지는 서법예술상 걸출한 성과로 말미암아 후대에 “서성”이라 불린다. 북위통치자는 한족 문화를 숭상하며 서법예술을 중시하여 고아하고 중후하며 웅장하고 힘찬 비각의 서체를 남겼다. 중국 서법예술은 중화민족은 문화의 진귀한 보물이며 세계 문화예술보고 중 특별하고 뛰어난 색채를 드러냈다.

위진남북조시기 회화는 불교가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종교회화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동진의 고개지는 가장 저명한 화가로 그는 인물화에 능했는데, 그림의 선이 매우 아름다워 살아 움직이듯하며 인물에 정신이 담긴 듯하여 풍부한 개성을 담고 있다. 고개지는 일생 많은 작품을 창작했는데 전해오는 작품으로는 『여사잠도 (女史箴圖)』와 『낙신부도 (洛神賦圖)』가 있다. 모두 모사본이며 동시에 산수시가 늘어남에 따라 산수화가 시작되었다.

남북조시기 통치 계급은 불교를 선양했는데 한 지역의 산 절벽에 많은 석굴을 팠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석굴이 산서성 대동의 운강석굴과 하남 낙양의 용문석굴이다. 이 두 석굴군 안에는 수만 개 이상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불상은 진한이래 우리나라의 소조예술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고 외래에서 전해온 조형예술의 특징을 흡수하여 웅대하고 정교한 조각 예술품이라 할 만하다.